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통신사 자료

김윤아*

| 목 차 |

- I. 머리말
- II. 사행단의 기록
- III. 일본에서 기록한 사행
- IV. 성신교린(誠信交隣)의 기록
- V. 그림으로 표현된 교류
- VI. 맺음말

I. 머리말

통신사는 해양을 통해 대외교류를 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외교사절단이다. 해양을 통한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을 통한 교류를 연구하고자 국립해양박물관은 박물관 설립 초기부터 “통신사”를 특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왔고, 상설전시실에는 국내 최대 규모로 복원·제작한(실물의 1/2) 통신사선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6년여 동안의 이러한 집중적인 자료 수집은 2016년 부산문화재단과

* 국립해양박물관 / yoonah@knmm.or.kr

일본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후보 목록에 우리 관 소장 자료 4건 4점을 포함시키는 결실을 맺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은 “유네스코가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문화유산”이다.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의·추천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정한다¹⁾. 지금까지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조선왕조실록” 등 총 13건²⁾이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후보 목록에 등재된 기록유산물은 외교기록, 여정기록, 문화기록의 기록 3가지로 분류하여 신청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2016년도까지 수집한 통신사 관련 자료는 총 49건 78점이다. 분야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조선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료로 분류되고, 그 세부로 통신사 행렬과 통신사선단 등을 기록한 기록화, 사행단의 일원인 화원이 그려서 일본 측에 선물한 회화류, 또한 일본과 한국의 학자가 선린우호의 정을 나눈 수창시 등의 기록물, 사행단의 역관 기록, 통신사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과 대마도 전도, 통신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문서 등이 있다.

그 중 일부 자료를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5020&cid=40942&categoryId=33736>(검색일 17.1.15.)

2)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조선왕조의례(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Ⅱ. 사행단의 기록

우리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행단의 기록들은 통신사 사행원으로 조선을 떠나 일본 방문 후 귀환할 때까지의 노정과 견문을 기록한 사행록 등의 기록물, 임진왜란 당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조선인을 데리고 돌아오며 당시 일본에서 겪은 감회를 읊은 기행시문류가 있다. 그리고 계미사행록(1763년 8월~1764년 7월)의 정수로 꼽히는 기록물 일관기와 조선시대 역관집안인 천녕현씨가 대표적인 인물인 현계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연보 등 해양 역사교류의 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

1. 서산유사 西山遺事 (1710년, 18.6×26.5cm)

1710년 사행시 일본에 갔던 통신사와 관련한 공적 문건들의 내용을 정리한 필사본이다. 1682년(숙종8) 정사 윤지완, 부사 이연강, 종사관 박경후, 제술관 성완과 475명의 일행이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의 취임 축하를 위해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여 활동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시의 통신사선에 신고 갔던 여러 가지 물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동사일기 東槎日記 (조선중기, 20.0×27.3cm)

조선 중기의 문신인 황신(黃愼, 1560~1617)이 1596년(선조29) 8월 통신사로 떠나서 12월 귀환할 때까지의 노정 및 견문을 기록한 자료이다. 표지에 동사일기와 더불어 『日本往還日記』라고 적혀 있다.

황신은 명나라 황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일본 국왕으로 임명한다는 칙서를 전하기 위해 파견된 책봉사 양방형(楊邦亨)과 심

유경(沈惟敬)의 접빈관으로 일본에 갔다. 당시 조선이 복속하겠다는 증거인 두 왕자를 보내지 않고 통신사를 보내자 격분한 히데요시는 통신사를 만나지 않았고, 결국 황신은 사카이(堺)에서 돌아오고 만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된다.³⁾ 『동사일기』



<그림 1> 동사일기

에는 당시 일본의 국내 실정, 상하의 동향 및 생활풍토 등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간결한 문체로 서술한 내용이 실려 있다.

3. 경상감영 문서등록 慶尙監營 文書謄錄 (조선후기, 29.7×50.4cm)

197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초반까지 경상감영에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각종 문서를 필사한 자료이다. 수록된 내용은 부산에서 올린 통신사가 가지고 갈 반전(盤纏)의 잡물(雜物)을 존감(存減)하여 환송(還送)한 기록, 통신사 일행의 예단(禮單)에 소용되는 인삼에 대한 기록, 함안(咸安)·고성(固城)·합천(陝川) 등 38곳의 인삼을 분정(分定)한 기록이다. 총 22면에 기록되어 있다.

4. 송목각유고 松穆閣遺稿 (조선후기, 13.6×18.1cm)

역관출신인 송목관(松穆館), 이언진(李彦璘)(1740~1766)의 시문집이다. 이언진은 27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뛰어난 서예와 시문으로 중인 문학에 큰 자취를 남겼다. 그의 스승 혜환 이용휴(李用休)는 제자의 재주와 문장을 아껴 직접 원고에 ‘송목관집서’라는 서문을 작성해 주었다.

3) 부산박물관,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 2015, 20쪽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1860년 중국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후손 이진명(李鎭命) 등에 의해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해양박물관 소장 필사본에는 해람편(海覽篇), 제해신(際海神) 등 1763년 일본 사행 중에 지은 문장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특히 후대 간행본과 문장의 출입이 있어 현재까지 발굴된 이 언진 유고와 비교를 통해 새로운 유고의 발견이 기대된다.



<그림 2> 송목각유고

5. 현계근 일기(1900년 전후, 19.5×27.8cm)

일본어 역관(譯官) 현계근(川寧 玄氏)에 관한 1744년(건륭9년, 영조20년, 19세)부터 1898년(가정3년, 73세)까지의 기록이다. 전사본으로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연월순으로 정리하여 연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3> 현계근 일기

현계근(玄啓根, 1726~1799)은 초명 경제(敬躋), 자는 일승(日昇), 회백(晦伯)으로 사역원관을 지낸 현심(玄沈)의 아들이다. 영조23년(1747) 정묘(丁卯) 식년시에서 3등 7위로 왜학에 합격하였다⁴⁾. 왜학교회(倭學敎誨) 자헌대부(資憲) 지추(知樞)(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xmId=EXM_Z1_6JOc_1747_001404&curSetPos=0&curSPos=0&isEQ=false&ristalSearchArea=P(검색일:2017.1.3.)

조선시대 천녕현씨는 잡과 중 역과(譯科) 합격자 7,976명 중에 105명(3.5%)을 배출한 역관 집안이다. 천녕 현씨 집안은 다른 역관 집안보다 비교적 늦은 1718년에 현덕윤이 역관사 부대표로 파견된 이후 125년 동안 9번 대마도에 다녀왔다. 통신사행은 12회 중 4회 참여하였다⁵⁾.

현계근 일기는 작성된 종이의 재질로 보아 일제강점기에 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는 대대로 조선시대 역관집안인 천녕현씨 일가의 대표적인 인물 현계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연보이다. 역관이 주요하게 활동했던 국가행사 및 통신사 사행 등 해양역사의 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Ⅲ. 일본에서 기록한 사행

1. 조선인래조기 朝鮮人來朝記 (1744~1747년)

1748년(영조24) 사행에 대해 일본 측에서 기록한 필사본이다. 첫 장에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대략적인 목차가 필사되어 있고, 본문은 차례대로 사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참여인원수, 5월 21일 에도(江戸)에 도착한 후 약 한 달간의 일정, 일본에 보낸 도서 및 별폭, 접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의 목록, 접객 방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사등



<그림 4> 조선인래조기

성행렬(信使登城行列)이라는 제목으로 통신사의 행렬을 관직명으로 표

5) 김양수, 「조선전환기의 중인집안활동」, 『東方學志』, 1998, 189쪽

기하였다.

조선과 일본 측에서 각각에게 보낸 도서 및 별폭의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인장이 대략적으로나마 묘사되어 있어 그 내용과 형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 한사통어집 韓使通語集 (1719년, 17.1×24.0cm)

1719년(숙종45)에 일본의 문인 하타 세키젠(八田碩軒)이 필사한 책이다. 같은 해 11월 6일 혼간지(本願寺, 현 오사카 위치)에 마련된 통신사의 숙소에서 에도막부의 제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림 5> 한사통어집

파견된 정사 홍치중(洪致中), 부사 황선(黃璿), 종사관 이명언(李明彦), 제술관 신유한(申維翰) 등과 함께 필담을 나눈 것을 필사하였다. 서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시를 지어주거나 소개한 호(號)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의 여부, 통역하는 방법(諺法)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서로 문답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서적이다.

3. 조선통신사 일행 좌목 朝鮮通信使一行座目(1764년, 16.5×23.5cm)

1763년(영조39) 에도막부의 제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갔던 472명의 통신사 및 수행원에 관한 좌목(座目)이다. 정사 조엄(趙巖), 부사 이인배(李仁培), 종사관 김상익(金相翊), 제술관 남옥(南玉) 등의 관직명·성명·자호(字號)

· 출신 지역을 기록하고, 한자 옆에 카타카나로 작게 음을 적었다. 끝 부분에는 통신사 접반업무를 담당한 일본 측 관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영조실록』의 기사를 통하여 통신사 일행의 임명과 귀국 후 이들의 품계를 올려주거나 상을 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사 조엄은 대마도에서 가져온 고구마의 종자와 재배법을 널리 보급한 인물이다. 마지막 장에 기록된 “寶曆十四甲午年(1764)正月吉日”과 “寶曆十四季<季>夏十有三日寫之 桃蹊註”라는 날짜로 보아 사행이 이루어진 다음해에 편찬된 원본을 같은 해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⁶⁾.

4. 문화5년진십일월 조선인래빙 관련 기록 文化5年辰十一月 朝鮮人來聘 關聯 記錄 (1825년, 17.3×24.8cm)

1811년(순조11)에 에도막부의 제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徳川家齊)의 취임 축하를 위하여 파견된 통신사와 관련된 보고서 5건이 필사된 책이다.

이 당시의 사행은 ‘역지통신(易地通信)’으로 에도에 있는 막부 쇼군과 직접 국서를 교환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국서교환이 대마도에서 이루어지는 등 의례가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종사관이 빠지고 정사 김이교(金履喬, 1764~1832), 부사 이면구(李勉求, 1757~1818) 양사(兩使)만 파견되어 사신단의 규모는 총 336명으로 역대 사행보다 축소되었다. 1764년(영조40) 제11회 통신사행 이후 무려 47년 만에 성사된 통신사의 일본파견은 시대의 격변과 위기감 등을 반영하여 일본 화사(畫師)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1711년 통신사행 다음으로 많은 기록과 회화를 남겼다⁷⁾.

6) 국립해양박물관, 『고문서』, 2014, 122쪽

뒷표지에는 “近江國甲賀郡倉田庄 水口天王邑八幡久保 藤邑治三郎書之文政八酉二月吉日改之”라는 목서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근강국(近江國) 갑하군(甲賀郡)의 팔번구보(八幡久保)와 치삼랑(治三郎)이 쓴 것을 1825년에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강국 갑하군은 현재 일본 긴키(近畿)지방 동북부에 위치한 시가현(滋賀縣)이다.



<그림 6> 조선통신사 일행 좌목

5. 조선인래빙어국역김병주수전마락기 朝鮮人來聘御國役金并疇首傳馬略記 (1825년, 17.4×25.3cm)

1763년(영조39)부터 1766년(영조42)에 걸쳐 일어난 중산도전마소동(中山道傳馬騷動)이라는 사건과 관련된 책이다. 제목은 표지에 “朝鮮人來聘御國役金并疇首傳馬略記”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御國馬騷動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중산도’에서는 도로를 따라 숙박업이 행해지고 있었다. 1763년 8월 일본에 온 통신사는 물론 다음해 닛코(日光)의 東照宮에서 있을 행사를 앞두고 평소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막부에서 해당 촌락에 막대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봉기하는 세력이 점차 확대되었고 도로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7) 정은주, 『1811년 신미통신사 빈레 관련 회화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8권 제1호, 2015, 164~165쪽

IV. 성신교린(誠信交隣)의 기록

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에 파견하였던 외교 사절단이다. 임진왜란 이후 통신사를 파견하여 조선과 일본은 200년간 평화의 시대를 지속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문물이 교류되었다. 통신사의 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각지의 유학자들이 찾아와 시문수창과 필담을 나누었다. 이별을 아쉬워하며 주고받았던 봉별시고, 서로의 시에 차운한 증답시, 그림에 남긴 화찬 등으로 당시 한·일간 문화교류를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이 시기에 통신사와의 교류를 통해 에도시기 유학을 꽃피울 수 있게 되었다. 통신사 일행이 해로와 육로를 거쳐 에도에 이르렀는데 그 도중에 사신이 통과하는 객사에서는 한시문과 학술의 필담창화(筆談唱和)와 화원들의 그림을 받기 위해 지역의 영주들과 학자, 문인들이 줄을 지었다. 조선 또한 통신사를 통해 저명한 일본 유학자들의 이름과 저작이 전해져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⁸⁾.

통신사 일행 중 제술관과 서기가 담당했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일본 문인들과의 시문창화와 필담이었다. 필담과 한시로 이루어진 필담창화집은 두 나라가 동아시아의 공통 의사소통 수단인 한문과 한시를 공유하며 만들어낸 매우 특수한 형태의 기록으로, 필담을 통해 상호관심사를 나누고 시를 통해 진실한 마음을 교류한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상징물이다⁹⁾.

조선의 조정에서는 학식이 깊고 문재에 뛰어난 이들을 뽑아 사행단을 꾸렸고, 이들은 사행하는 3,4개월 중에 수많은 일본 문인들과 접촉하고 많게는 1,000편 이상의 창화시를 써주기도 하였다. 일본인들은 통신

8) 한림대학교박물관, 『산해관을 넘어 현해탄을 건너, 동아시아 지식인의 교류』, 2012

9) (재)부산문화재단·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2016, 16쪽

사의 시문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쓴 글에 서문과 평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과도한 시문 요청으로 수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신사와 일본 문사들과의 시문창화는 회를 거듭할수록 성행하여 많은 창화시집이 필사본 또는 간행본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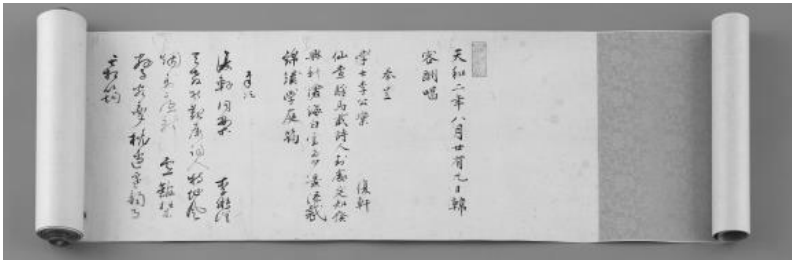
2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통신사 외교의 결과물인 중요한 자료들은 평화의 구축과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선린과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

1. 조선통신사 수창시 朝鮮通信使 酬唱詩 (1683년, 935.0×29.0cm)

천화(天和) 2년 8월 29일에 일본인 야마다 켄킨(山田原欽)이 조선의 통신사 제술관 성완(成琬), 서기관 이담령(李聃齡) 일행과 수창(酬唱)한 시를 필사한 것이다. ‘천화(天和)’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때 사용된 연호 가운데 하나로 1681년부터 1683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화(天和) 2년’은 1682년을 의미하고, 한객(韓客)은 ‘삼한(三韓)의 손님’이라는 말로,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조선인을 현지인들이 부르던 말이다. ‘수창(酬唱)’은 시가(詩歌)를 주고받으며 부른다는 의미로, 시축의 첫머리에는 ‘8월 29일’로 명시되었지만 중간에 ‘9월 2일’에 수창한 시도 수록되었으므로, 사실상 8월 29일과 9월 2일 양일간에 걸쳐 수창한 시를 기록한 자료이다.

시축에 수록된 작품은 칠언절구(七言絶句) 24수와 오언율시(五言律詩) 1수로, 총 25수이다. 시축의 마지막에는 “위에 기록한 것은 천화 임술년(1682)에 내가 조선에서 온 손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은 여러 작품인데, 소방씨(小方氏)의 요청에 따라 몽당붓으로 적은 것이다.”라고 하여 작성 경위를 적었으며, 한객(韓客)의 인물정보도 간략히 기록하였다.

‘조선의 시인이 신선이 타는 배와 말을 타고 와서 일본 도처에 새로운 흥취를 일으킨다. (仙查驛馬載詩人 到處定知發興新)’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문인들에게 통신사와의 문화교류는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기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신사행의 한 일문화교류는 하나의 전통으로 정착되었으며, ‘사행문학’이라는 문학의 한 범주를 형성하였다¹⁰⁾.



<그림 7> 조선통신사 수창시

2. 조선통신사 봉별시고 朝鮮通信使 奉別詩稿 (1811년, 143.0×28.0cm)

봉별시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남긴 시문으로 통신사와 일본 문사들의 국경을 초월한 우정과 문화교류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통신사와 일본학자의 우정이 돋보이는 이 시는 2015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한일공동등재 추진 목록 총 111건 334점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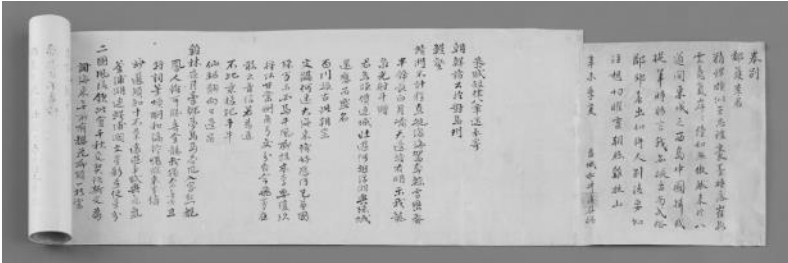
奉別 都護李君 도호 이군과 이별하며
 精悍頗似王思禮 날쌔고 용맹스러운은 왕사례¹¹⁾王思禮 같은데

10)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2013, 71쪽

11) 고구려 출신의 당나라 장수

豪墨時落崔孤雲 때로 최고운(최치원)처럼 호방한 필묵을 휘두르네.
 意氣岸岸傍如無 의기는 높고 높아 곁에 사람이 없는 듯하고,
 傲然來於八道間 팔도(八道)에서 의연하게 왔으니
 東域之西島中國 그 서쪽에는 중국이 있다
 揖我捉筆時晤言 나에게 인사하고 붓을 쥐고 마주보며 이야기하네.
 我亦振古尙武俗 우리 또한 예로부터 무를 숭상하였으니
 隣邦喜出如許人 이웃 나라에서 이런 사람 온 것을 기뻐하네.
 別後要知去想切 이별한 뒤에 그리움이 간절할 것을 알겠으니
 曜靈朝照鷄林山 해가 아침마다 계림(조선)의 산을 비추리.

신미년(1811) 여름. 마시키(益城)에서 마츠자키 고도(松崎謙堂) 지음



<그림 8> 조선통신사 봉별시고

1811년(순조11) 여름,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 막부의 영접사였던 일본 최고의 유학자 마츠자키 고도(松崎謙堂, 1771~1844)가¹²⁾ 일본을 방문하였던 통신사 이면구(李勉求)에게 지어준 송별시이다. 일반적인 시와 달리 중간에 운자(韻字)를 바꾸어 7언 10구로 이루어져 있다.

12) 마츠자키는 1811년 통신사 일행을 대마도에서 맞아 김이교(金履喬)·김선신(金善臣)·김재현(李顯相) 등과 많은 문답을 주고받는 등 조선의 학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다. 『겸당일력(謙堂日曆)』이라는 자신의 저술에서 청대 고증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완원(阮元)의 『황청경해(皇清經解)』의 자료 가치를 활용법을 배우고 익혔다.

시에서 작가는 이면구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이군(李君)¹³⁾”이라 칭하였는데 여기서 군(君)은 “さん(상)”과 같은 의미로 친근한 사이의 경칭이다. 상대의 인품과 호방한 글씨를 왕사례와 최고운에 비겨 칭송하고 ‘자신은 예로부터 무용(武勇)을 숭상했는데, 이웃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셨다’고 감탄하였다. 끝부분에는 이별한 뒤에 간절히 그리울 텐데 아침 햇빛이 계림의 산을 비추어 줄 것이라는 은근한 뜻으로 매듭지었다.

봉별시고의 뒷부분에는 쓰시마(對馬島)의 우에키 아키라(植木晃)가 쓴 「공부단률팔장요봉기(恭賦短律八章遙奉寄)」시문이 이어져 있다.

3. 조선통신사 시고 朝鮮通信使 詩稿(1811년,

37.5×122.5cm)

1811년(순조11)에 통신사 사자관으로 일본에 간 동강(東岡) 피정종(皮鼎宗)이 쓴 오언시이다. 사자관(寫字官)은 각종 문서나 문헌을 정사(精寫)하는 일을 맡은 중앙관원이었다.

시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睡起無一事 怡然眄庭嫁綠陰微飈處 最得南颺多)’을 소재로 한 내용이다. 원편에 ‘조선동강(朝鮮東岡)’이 부기된 것으로 보아 사자관이 일본 측에 선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그림 9>

조선통신사 시고

13) 이군: 이면구(李勉求, 1757~1818). 조선 후기의 문신. 암행어사·대사성 등을 지냈으며, 청렴결백하였고 공정한 일 처리로 칭송을 받았다. 1811년 부사직으로 통신부사(通信副使)가 되어 일본에 다녀왔으며, 후에 의주부윤·대사성 등을 지냈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나, 당대 최고의 명필로 이름이 높았다.

14) 국립해양박물관, 『고문서』, 2014, 110쪽

V. 그림으로 표현된 교류

1. 통신사선도 通信使船圖 (18세기말~19세기 초, 이시자키 유시 石崎融思, 54.0×79.0cm)

일본화가 이시자키 유시(1768~1846)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이다. 통신사 사행단의 한 인물로 보이는 조선인이 배 가운데 누각에 앉아 있으며, 선내에 놓여있는 그릇과 호피 의자 등 각종 기물이 조선의 것으로 보인다. 배의 형태가 일반적인 통신사선의 형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용·해태장식 등을 통해 조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2. 통신사선단도 通信使船團圖(에도시대, 작자미상, 140.0×62.0cm)

일본에 입항하는 통신사 선단과 항구 주변의 경관을 묘사한 그림이다. 화면 하단부에는 작은 배로 갈아타고 물으로 향하는 통신사의 모습과 통신사선에 작은 배를 대고 물건을 내리고 있는 모습, 선상에서 일행의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등 통신사가 입항하는 장면과 항구 주변 일상 모습이 풍속화적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카노 탄신(守野探信, 1785~1835)이 그린 두 종류의 “조선통신사선단도병풍(朝鮮通信使船團圖屏風)”에서 차용된 장면이 곳곳에 보이고 배의 모양도 흡사하다.¹⁶⁾



<그림 10>
통신사선단도

15) 국립해양박물관, 『소장품 도록』, 2016, 65쪽

16) 이로보야 카노 탄신의 작품이거나 누군가 카노 탄신의 병풍 그림에서 주요 장면을 축약하여 옮겨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부산박물관,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 2016,

3. 남가몽도 南柯夢圖 (18~19세기, 85×37cm)

“남가몽도”는 인생의 덧없음을 뜻하는 남가몽(南柯夢) 고사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고사는 당나라 사람 순우분(淳于棼)이 꿈 속에서 유래한다. 순우분은 꿈 속에서 개미들의 왕국인 괴안국(槐安國)의 사자(使者)들을 따라 괴안국에 가서 임금의 사위가 되고, 남가군(南柯郡)을 다스리며 20여 년 간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림에는 나무 아래 자고 있는 남자와 그의 오른쪽에 깃발을 들고 가마를 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남가몽 고사의 도입부인 순우분과 괴안국 사자의 모습인데 사자의 복식과 지물, 의장 등이 통신사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들의 통신사에 대한 이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¹⁷⁾. 유사한 자료로 하나부사파(英派)의 대표적인 화가인 하나부사 잇뵈우(英一峰, 1691~1760)의 그림이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1>
남가몽도

4. 이의양의 화조도 李義陽 花鳥圖 (1811년, 41.0×100.0cm)

1811년(순조11) 통신사 수행화원인 이의양(1768~?)이 그린 그림으로 꽃나무와 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의양은 19세기에 활동한 화원으로 본관은 안산이며, 자는 이신(爾信), 호는 신원(信園)·운재(雲齋)·팔송관(八松觀)이다. 1896년 심양문의사행에 이어 1809년경 북경까

99쪽)

17) 부산박물관, 앞의책, 2016, 102쪽

지 동지사행을 하였고, 1811년 마지막 통신사행 화원으로 쓰시마까지 수행하였다¹⁸⁾. 조부를 비롯한 직계 조상들 중에는 화원보다는 역관 출신이 많다.

그림 좌측 상단에 ‘조선이신(朝鮮邇信)’이라는 이의양의 자와 주문방인 두과가 적혀있고, 뒷면에는 도화소조도(桃花小鳥圖)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811년 통신사 수행 화원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이의양 화조도

이의양이 통신사행 때 남긴 작품으로 <대마도부중도첩(對馬島府中圖帖)>, <송호도(松虎圖)>, <화림채금(花林彩禽)>(이상 간송미술관 소장)과 <산수도(山水圖)>, <응도(鷹島)>, <호도(虎圖)>(이상 일본 유현재(幽玄齋) 소장), <호호도(嗥虎圖)>(일본 교토 건인사 소장), <산수도(山水圖)>(신기수 소장), <유하준마도(柳下駿馬圖)>(개인소장) 등이 있다¹⁹⁾.

국립해양박물관은 화조도 외에도 이의양의 그림 총 4점(응도, 산수화, 화조도)을 소장하고 있다. 도화서 화원이었던 이의양의 작품은 국내에 남아있는 작품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화사적으로도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5. 역관사행도 譯官使行圖(1925년, 29.0×474.0cm)

1838년 역관사행을 묘사한 행렬도이다. 발문에 의하면 그림이 제작된 시기는 이보다 훨씬 후인 1925년이다. 문위행(問慰行)은 대일 외교

18) 정은주,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0집, 2015.

19) 강민기, 『近代 轉換期 韓國畫壇의 日本畫 유입과 수용 : 187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14쪽

의 실무자인 역관이 중심이 되어 쓰시마에 파견된 사절로, 조선후기 대일 외교 사절 중 파견 횟수가 가장 많다. 당상역관, 당하역관, 관관, 선장, 도훈도(都訓導), 소통사, 소동, 악대, 사공, 격군 등으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150명이 될 때도 있었다. 평균 4~5년 주기로 파견되어 두 나라의 실질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였다. 파견임무는 쓰시마 번주에 대한 문위(問慰), 통신사 파견 의례에 대한 협의, 일본 정세 정탐, 외교상 분쟁 해결 등 다양하였으나 쓰시마 도주에 대한 문위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²⁰⁾.



<그림 13> 역관사행도

6. 통신사가 그린 일본과 대마도 지도 (18세기 후반, 92.5×57cm)

18세기 후반 통신사에 의해 제작된 일본과 대마도 채색지도이다. 해도가 붉은 선으로 표시된 지도로 조선과 일본의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지도의 크기는 가로 92.5cm, 세로 57cm이고, 지도 사변에는 방위를 알리는 동·서·남·북이 표기되어 있다. 북쪽의 오른쪽에는 조선(朝鮮),

20) 부산박물관,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 2016, 198쪽

왼쪽에는 마쓰마에(松前), 바로 옆에 에조²¹⁾(蝦夷, 홋카이도의 옛이름)라고 적혀 있다. 왼쪽 하단에는 5畿7道の 범례가 색깔별로 나뉘어 표기되어있다.



<그림 14> 일본지도

대마도 지도에는 조선에서부터 일본과 대마도의 각 지점을 측정한 거리를 조선 화관(倭館)으로부터 46리라고 표시하고 있다.

해사일기에는 “일본 지도 개정분을 얻어 화사 김유성(金有聲)으로 하여금 그리게 하였다. 소위 ‘대지도(大地圖)’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라는 기록²²⁾이 나온다.

또한 “대마도의 지도와 인쇄된 일본 지도를 구득하여 변박(下璞)으로 하여금 모사하게 하였다. 변박은 동래사람으로 문자에 능하고, 제3기

21) 에도시대 일본에서 ‘에조(蝦夷)’로 불리던 이 지명은 조선에서 한자 발음대로 ‘하이’로 불렸다(배우성, 『조선시대 蝦夷 인식과 서구식 세계지도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28, 2004, 123쪽)

22) 『해사일기』 3. 갑신년정월, 『해행총제』 VII., 155쪽

선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다’라는(1763년 10월 10일)자의²³⁾ 기록에서 보듯이 통신사가 일본의 지도를 구해 필사했음을 통신사 사행기록인 『해행총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지도와 대마도 지도 모두 한지에 채색 필사로 그려져 있다. 안료와 색감은 일본의 것으로 보이나, 한지를 사용하여 그렸고 지명을 표기하는 한자를 쓰는 방식으로 보아 통신사의 수행화원이 일본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전도는 전례된 사례가 기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지도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마도 지도는 남아있는 자료가 흔치않아 원본의 지도를 모사한 것인지 등 추후의 학술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VI. 맺음말

해양을 통한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사이다. 우리 관은 설립 초기부터 해양을 통한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을 통한 교류·해양외교를 연구하고자 “통신사”를 특화하여 관련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왔다.

우리 관에서 수집한 통신사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소개하였다. 분야별로 통신사 행렬과 통신사선단 등을 기록한 기록화와 사행단의 일원인 화원이 그린 회화류, 또한 일본과 한국의 학자의 선린우호를 보여주는 수창시 등의 기록물, 사행단의 역관 기록, 일본과 대마도 전도, 그 밖에 통신사의 사행에 대해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문서 등이 있다.

23) 『국역해행총제』 VII., 57쪽

이 외에도 본고에서 소개하지 않은 다양하고 귀중한 자료들이 있다. 비와코를 방문한 통신사의 방문활동과 “正”字 깃발이 나부끼는 정사선(正使船)의 모습이 묘사된 『근강명소도회(近江名所圖會)』(1814, 18.1×26.9cm), “조선국(朝鮮國)”이라고 적혀진 바위를 향해 날아오는 새를 그린 1746년 사행시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자미상의 부채 그림 『수조도(樹鳥圖)』(1746년, 33.0×15.0cm), 도쿄에서 조선까지의 여정을 상세하게 그린 파노라마 형식의 그림에, 일본의 주요 건물 및 풍부한 지리적 정보와 해로(수로)까지 자세하게 표시한 『통신사 귀로도중도(通信使 歸路道中圖)』(에도시대)를 비롯한 자료들이 그것들이다.

해양교류사 연구를 위한 우리 관의 다양한 노력은 관련자료 수집과 사례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후보 목록에 우리 관 소장 자료가 포함되는 결실을 맺었고, 금년 하반기 등재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통신사 외교의 결과물인 중요한 자료들이 선린과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연구·보존으로 통신사의 왕래를 통한 양국 문화교류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꽃피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참고문헌 |

『해사일기』3. 갑신년정월, 『해행총재』 VII., 155쪽

『국역해행총재』 VII, 57쪽

강민기, 「近代 轉換期 韓國畫壇의 日本畫 유입과 수용 : 187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재)부산문화재단·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2016

국립해양박물관, 『고문서』, 2014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2013

국립해양박물관, 『소장품 도록』, 국립해양박물관, 2016

김양수, 「조선전환기의 중인집안활동」, 『東方學志』, 1998

부산박물관,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 2016

배우성, 「조선시대 蝦夷 인식과 서구식 세계지도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28, 2004, 123쪽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이근우, 「조선 통신사와 일본 지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4

신로사, 「1811년 신미통신사행과 조일 문화교류 - 필담·창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정은주, 「1811년 신미통신사 빈례 관련 회화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8권 제1호, 2015

정은주,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교류」,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0집, 2015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마음의 교류 朝鮮通信使』, 2004

조선통신사학회, 『조선통신사연구』 제21호, 2016

차미애, 「공제 윤두서의 국내의 지리인식과 지도작성」, 『역사민속학』 (37), 2011

최선웅, 「행기도의 변천과 조선 전래」, 『한국고지도연구』, 8(1), 2016

한림대학교박물관, 『산해관을 넘어 현해탄을 건너, 동아시아 지식인의 교류』, 2012

황은영, 「1811년, 신미통신사 은행회원 이의양에 대하여」, 『강원사학』 제22.23합본, 2008